

# 지식인 중심 윤석열 지지 모임, 21일 출범...진중권 기조발제 맡아

✎ 강민정 기자 | ⓒ 승인 2021.05.21 11:50

대학교수·법조인 중심 윤석열 지지자 33명, '공정과 상식' 출범  
尹 총장 지도교수 축하강연·정용상 명예교수 "반듯한 대한민국"



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인 '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(공정과 상식)'이 21일 출범식과 토론회 등을 갖는다.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담당했다.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'국제질서의 변동과 우리의 과제'를 주제로 축하 강연을 하고 있는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. /연합뉴스

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 33명이 21일 공식 활동에 들어선다.

'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'(공정과상식)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함께 '윤석열,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'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.

이전까지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지식인을 주축으로 형성된 정치 세력은 발견하기 어려웠다. 나아가 이들이 '직접' 지지조직을 결성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안으로,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.

이들은 이전부터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 '반(反)문' 기초를 명확히 했다.

정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(공동대표)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면 "반듯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모임을 출범했다"고 설명했다.

출범식 등에선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인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 '국제질서의 변동과 우리의 과제'란 주제로 축하 강연을 갖는다.
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기초 발제를 맡았다. 진 전 교수는 이전까지 진보 인사로 분류됐지만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입시 비리 문제 등이 불거진 이후로 '조국 흑서'를 제작하는 등 자신의 사회관계 망서비스(SNS)를 통해 현 정권을 꼬집는 의견을 다수 밝혔다.

토론은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 김태규 전 부장판사가 담당한다.

발기인에는 정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종욱 전 한국체대 총장,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, 황희만 전 MBC 부사장 등 33인이 이름을 올렸다.



강민정 기자 [kkkmj@seoulmedia.co.kr](mailto:kkkmj@seoulmedia.co.kr)